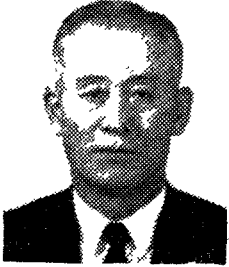


사료 수급의 전망



유 윤 수

〈한국 사료협회 회장〉

1. 국제동향

가. 미국의 소맥 및 사료곡물 작황

미국농무성이 8/11에 발표한 8/1현재 미국 소맥 및 사료곡물의 작황내역을 보면 <표 1>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옥수수는 74년 대비 25.8%가 증산 예상되나 7/1대비 3.2%가 감소되고 있다. 이와같은 원인은 대평원지대의 흉수와 아이오아주를 중심으로 한 옥수수 주산지대의 가뭄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대두는 전년대비 18.2%, 소맥은 19.4%, 수수 29.1%, 귀리 12.5%, 보리 26.1%, 아마인실 22%, 쌀 9.4%가 각각 증산 예상되고 있는 바 지난해 미국이 한발로 인하여 흉작을 면치 못하였던 사실에 비하면 크게 증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와같이 숫자 면에서 크게 증산되는 것처럼 나타나 있으나 생육기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과연 농작물의 콩, 흉을 가름 할 친후의 변동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변동이 오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 작황은 매우 달라지게 될 것이다. 미농무성은 매월 1일 현재의 작황을 조사하여 그달 11일에 발표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세계의 소맥이나 사료곡물시세의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작황의 숫자 표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산지대의 소량의 강우나 한발 및 그 밖의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거만 하면 미국의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선물거래가

격은 예민하게 변동되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작황 예상내역과 8/1작황 예상내역을 대비하여 보면 대두만이 0.5%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비하여 옥수수 3.2%, 소맥이 2.1%, 귀리 4.6%, 보리 1.3%, 쌀 1%가 각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옥수수, 수수, 대두 및 쌀 등이 한참 생육하게 되는 8월의 일기가 또한 크게 콩, 흉을 좌우하게 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사료곡물 총생산량은 대략 연간 6억톤으로 추정되고 그중 교역량은 약 7천만톤 전후가 되고 있다. 세계 교역량중의 50%이상을 미국이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그밖의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연방,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일한 수출국가인 태국 등에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사료곡물 작황의 진행사항을 항상 예의 주시하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미국에서의 선물거래가격이 이와같은 작황의 진행상황에 따라 아주 예민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사료곡물의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아마인실의 4.4%, 호밀의 10% 감소를 제외하고는 대두 2%, 옥수수 2.6%, 소맥이 5.2%, 수수 6.9%, 귀리 4.6%, 보리 4.4% 그리고 쌀이 6.9%씩 각각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에이커당 예상수확량을 전년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대두 15.7%, 옥수수 22.6%, 소맥이 27.1%, 수수

21.1%, 귀리 7.5%, 아미인 28.4%, 쌀 2.3%, 그리고 호박이 7.0%의 증가율을 각각 표시하고 있으며 보리만이 16.4% 감소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같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영농기술이나 농업자재의 공급이 순조롭거나 또는 농업자재대가 싸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한발 때문에 이와같은 영농기술이나 농업자재를 충분히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격감되었기 때문이다. 품종개량을 비롯한 농업기술이란 일조일석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장기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투자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7/1현재나, 8/1현재 작황발표에 나타난 수확예상량이란 경작면적에다 에이커당 평년작수확 예상량을 곱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수확예상량은 처음에는 평년작에 근거를 두고 책정한 것이므로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가 예상의외로 순조로우면 생육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증수 예상발포도 있을 수 있고 일기가 불순하면 감소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표 1> 1975年 8/1現在 1975/76年産 作况發表

單位: 1,000

年度別 種別	單位	收 穫 豫 想 量			對 比(%)			栽 培 面 積			acre當收量(Bu)			
		1974(最終)	1975. 7. 1	1975. 8. 1	1975. 7. 1/74	1975. 8. 1/74	1975. 8. 1/75	1974	1975. 8. 1	%	1974	1975. 8. 1	%	
大 豆	톤	33,568.9	38,102.4—40,824	39,671.7										
	Bu	1,233,425	1,400,000—1,500,000	1,457,672	117.5	118.2	100.5	52,460	53,533	102.0	23.5	27.2	115.7	
옥수수	톤	118,144.21	153,564.8	148,587.3										
	Bu.	4,651,167	6,045,621	5,849,662	130.0	125.8	96.8	65,194	66,893	102.6	71.3	87.4	122.6	
全小麥	톤	48,807	59,534.7	58,259.4										
	Bu.	1,793,322	2,187,489	2,140,631	122.0	119.4	97.9	65,459	68,861	105.2	22.5	28.6	127.1	
수 수	톤	15,727.8		20,598.6										
	Bu.	628,081	not given	810,936	—	129.1	—	13,917	14,841	106.6	45.1	54.6	121.1	
귀 리	톤	9,570.0	11,280.2	10,762										
	Bu.	620,539	731,434	697,834	117.9	112.5	95.4	13,325	13,932	104.6	46.6	50.1	107.5	
보 리	톤	6,707.4	8,601.6	8,459.1										
	Bu.	308,077	395,075	388,533	128.2	126.1	98.3	8,218	8,642	104.4	37.2	31.1	83.6	
亞麻仁	톤	338.8		413.3										
	Bu.	13,337	not given	16,272	—	122.0	—	1,645	1,572	95.6	8.1	10.4	128.4	
쌀	톤	2,328.9	2,496.4—2,649.5	2,547.7										
	Bu.	114,096	122,300—129,800	124,813	110.5	109.4	99.0	2,569	2,777.5	106.9	44.4	45.4	102.3	
胡 麥								897	807	90.0	21.5	23.0	107.0	

註 1. Bushel當 kg數
 大 豆·小麥: 27.216kg
 옥수수·수수·亞麻仁: 25.401kg
 귀 리: 15.422kg
 보 리: 21.722kg
 쌀: 20.412kg

나. 기상과 농업과의 관계

예나 지금이나 농업이란 품종개량을 비롯한

영농기술의 발달과 보급, 또한 비료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저렴하고 풍부한 공급, 관개수리시설의 발전 등이 증산에 크게 기여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은 인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 그리고 어느정도의 자본투자로서 해결할 수 있겠으나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인력적 여건에 제약인자가 가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소위 기상조건인 것이며 선진국에서는 이 농업기상학이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하여 세계 각지로부터 기상정보를 수집하여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여 세계각국의 농작물의 수확예상량을 전망하는 자료의 일부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농무성의 년초발표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세계적인 대풍작이 기대된다고 한다. 단 “천후에 이변이 없는한”이란 주석이 붙어 있다. 미국의 농업기술이야 말로 그 어느나라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 에이커당 수량은 1972년도에 97부셀 1973년에 91부셀 1974년에 71부셀 1975.8/1현재 87.4부셀을 예상하고 있다. 농업경영 기술이 매년 향상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와같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원자재파동에 의한 농업자재가격의 상승등 요인이 있겠으나 특히 1974년도에는 파종시기의 강우에 의한 파종지연과 7~8월 생육시기에 있어서의 한발, 그리고 9월에 있어서의 냉해 등 요인으로 71부셀 수준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격감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천후변동이란 인력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각국이 년도 초에는 풍작 발표를 되풀이 하고 있다. 즉 반당수량을 평년작으로 보아 작부면적을 곱하면 그 해의 총 수확 예상량이 쉽사리 계산될 수 있다. 또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작부면적을 어느정도 인력으로 확장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작면적은 인공적인 것이며 또한 단위면적당 수량도 기술혁신에 의하며 어느정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매년 되풀이 되는 풍, 흉의 순환으로부터 보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각한대로 경작기술의 향상이나 품종개량등의 지혜만으로서 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허다한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동이란 인력 이상의 것이므로 냉해나 한발이 일정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한 대자연

의 변화무쌍한 대세앞에서는 소위 녹색혁명이 좌절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왕왕 있다. 따라서 대규모적인 천후이변은 항상 농작물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미농무성의 단서대로 천후이변이 없는한 반당수량을 평년작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천후이변이 있으면 풍작이 뒤따른다는 것을 추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상정보의 신속 정확한 입수와 주도면밀한 분석이 앞으로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원료구매에 응용될 수 있다면 그 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으나 이와같은 세계 기상예측이란 사실상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에는 적기에 응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나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태세를 갖출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

1) 미국의 농산물 수출진흥책의 방향전환

미국의 금년도 주요곡물 수급추정을 보면 옥수수, 수수, 대두 및 소맥 등 주요 곡물은 다같이 풍작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옥수수의 경우 7~8월의 생육기간의 천후조건 여하에 따라서 작황이 변동되겠으나 8/1현재 작황 발표내용으로 보더라도 전년대비 25.8%(148백만톤)가 증산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몰량이 확실히 생산된다면 미국의 소비나 해외소비의 급속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원료의 체화현상도 예견될 수 있으며 또한 60억부셀(1.5억톤)이상 수확된다면 미국의 소비동향, 해외의 소비동향, 그리고 서방측 선진국의 축산업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재고량의 해결이 미국에서는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금년초에 미국은 앞으로 극단적으로 공급과잉이 된다면 곡물가격의 폭락은 필연적인 현상므로 미국정부에서는 공급과잉 상태를 예상하여 소맥 사료곡물 및 대두등을 중심으로한 수출진흥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수출진흥의 구체안을 보면 첫째, 상품신용공사에 의한 단기차관공여의 확대. 둘째, 금회계년도에 대폭 증액된 농산물처리법에 의한 식량공

여의 계속. 셋째, 농업단체와 협력하여 수출진흥계획과 판매피알 사절단의 해외파견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수출의 확대선으로서는 첫째, 일본과 서구등의 소비확대에 수반되는 수출확대. 둘째, 동구공산으로의 수출확대. 셋째, 오일달러유입에 의하여 구매력이 증대되고 있는 산유국에의 수출. 네째, 인도 파키스탄등지 수출확대. 다섯째, 중공에의 수출. 여섯째, 소련에의 수출등을 기대하여 왔으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소련이 한발로 수확에상량이 감소되어 많은 식량 및 사료 곡물이 부족됨으로 소련에 곡물수출 교섭을 추진한 결과 7월20일 전후하여 약 1,100만톤정도의 소맥 및 사료 곡물을 수출하기에 이르렀고, 다시 (5~9백만톤의 추가 구매의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는 바 미국으로서는 우선 풍작에상에 대비한 국내 곡물가격의 하락방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2) 75년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

부즈 미농무장관은 8월초에 미국의 농산물수출은 216억불을 기록함으로써 농업부문에서만 120억불의 흑자를 냈다고 말했으며, 이 120억불의 흑자는 미농업부문의 결손액 100억불을 메꾸고도 22억불의 흑자를 또다시 기록한 것이다.

가) 사료곡물

사료곡물수출은 지난해 44백만톤에서 34백만톤으로 1천만톤이 줄었으나 수출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48억불을 기록하였다. 75년도 수출량은 주로 일본, 소련, 중공 등이 감소하고 1.1천만톤을 수입한 EC국가에서도 감소하였다.

나) 시장변동

1975년도에는 미국의 농산물수출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서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뚜렷이 증가되었으며, 서부유럽은 전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한 69억불을 수출하였다. 1975년도에 있어서도 일본은 미농산물수출에 있어 32억불로 가장 큰 시장이 되었으며 물량은 줄었다 하더라도 금액 면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일본은 사료곡물, 대두, 우

지, 우피, 돈육, 면화, 아마, 담배에 있어서는 가장 큰 수출시장이고 미국산 소맥은 단일국가로서는 소련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다. 소련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4억불로서 전년도보다 1억불이 감소하였으나 소련에 대한 수출은 1976년도에는 크게 증가될 것이다. (현재 약 1.1천만톤 계약하였음)

다) 개발도상국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도의 34억불에서 45억불로 11억불이 증가하였고 라틴아메리카는 전년도 수준인 24억불이고 아프리카는 전년도 보다 약간 높은 11억불이며 수출된 기본적인 상품은 소맥 사료곡물 및 식물성油 등이었다. 중공에 대한 수출은 전년도의 8.5억불에서 현저히 줄어 3억불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부즈 농무장관은 수출량을 늘려 세계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는 경작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미농부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75회계 년도중 수출량은 96백만에이커로 부터 생산된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74년도에 생산된 것 중에서 $3\frac{1}{3}$ 에이커 중 1에이커에서 생산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밀과 쌀 생산량의 2/3, 대두와 우피 생산량의 1/2이상, 면화생산량의 1/3이상, 그리고 사료곡물생산량의 1/4이 75회계년도중에 세계 시장에 수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소련의 작황과 곡물구매 전망

1) 소련의 곡물생산량 추정

미농무성이 추계한 1975년도 소련의 전곡물 추계량을 보면 당초 추계량은 2.1억톤이던것이 6/9일에는 2억톤으로, 7/9일에는 195백만톤으로, 그리고 7/24발표에 의하면 185백만톤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6/9일자 추계량을 보면 소맥 9.5천만톤, 사료곡물 9천만톤, 잡곡 기타 두류가 1.5천만톤 계 2억톤이었으나 7/9일에 소맥이 5백만톤 감소하여 195백만톤으로 줄었고, 다시 7/24일 발표에는 소맥이 9.5천만톤에서 9천만톤으로, 사료곡물이 9천만톤에서 8.5천만톤으로 1천만톤이 감소하여 185백만톤으

로 줄어 들었다. 7/9일 추계량에 의하면 소련이 약 1.5천만톤의 곡물부족이 예상됨으로 1.5천만톤의 곡물을 북미지역으로부터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되었는바 소련은 7/22까지 약 1천5백만톤상당의 곡물을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곡물시세를 자극한 것이다. 그러나 7/25 발표에 의하면 소련이 축산물생산계획을 줄이지 않는한 재고량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200만톤의 식량 및 사료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미국 농무성은 전망하고 있다.

2) 소련의 곡물구매 전망

현재까지 소련은 미국에서 옥수수 조맥등을 약 11백만톤 구매계약하였고 또한 캐나다 호주등으로부터 약 3백만톤을 구매계약하였기 때문에 이와같이 구매한 곡물은 금년산 신품이 수확되는 대로 수입할 것으로 본다. 이와같이 소련이 다량의 조맥이나 사료곡물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을 살펴 보면 소련의 불가강 동쪽의 신평발지역의 한발이 7월 중에 더욱 심했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라 추정되는바 소련은 앞으로 6백만톤을 추가 구매할 것으로 보이나 그 중에서 4~5백만톤을 미국에서 수입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미농무성에서는 대곡물수출상사에게 대량의 곡물거래교섭을 하기 전에 미농무성에 사전통보하도록 중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곡물거래란 일시에 3~500만톤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현재 추세로 보아 소련은 미국의 8/11작황발표 이후로 추가구매를 미루어왔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작황은 7/11대비 8/11이 약간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련이 곧 구매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를 품종별로 보면 옥수수보다는 조맥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1972년대에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조맥, 옥수수 및 대두 1,900만톤을 도입한 당시에 비하면 공급측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급력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한발과 수출량 증대로 국내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료곡물의 재고수준이 크게 떨어졌으나 그것은

미국의 계획 그대로 나타난 것이므로 크게 염려할 것은 못된다고 말하고 있다.

마.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세계사료곡물 교역량의 과반수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의 곡물거래는 첫째로, 국내수요와 수출수요로 구분되고 있으며 가격의 형성과정을 보면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시세를 예측하고 사료곡물을 구매하는 판단기준은 어디까지나 선물거래가격에 두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금년도의 옥수수 및 대두박의 선물거래가격의 시기별 변동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거래가격은 주로 시카고 곡물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에다 미국내 수송조작 및 에러베터사용료 등을 포함한 FOB가격에다 그때 그때의 한국까지의 선임을 가산하여 C&F가격(한국도착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표2>를 보면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금년 1/6현재 9월선적분의 옥수수시세는 톤당 \$166에 거래되었다. 이와같은 시세는 지난해 10월의 톤당 \$190대에 비하면 매우 하락한 시세이다. 또한 선물거래가격의 매년 거래시세를 보면 옥수수의 경우 신평수확분이 출하되는 12월시세가 가장 싸고 차차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곡이 출하되어 가격이 유리하다면 귀리, 보리, 호맥 그리고 조맥의 사료충당미가 가능하므로 하곡의 작황과 가격형성여하에 따라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의 옥수수의 풍작이 예상되고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가격이 상승되지 않으나 재고가 부족하고 일기불순으로 흉작이 예상되거나 또는 제3 수입국가의 흉작으로 수출수요가 더욱 증대하면 폭등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금년도 6월까지의 태풍이 예상되므로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다. 1/6대비 2/3일에는 \$166에서 \$157로 \$9이, 3/3일에는 전월대비 \$20하락 4/3일에는 \$6상승, 5/1에는 \$13하락(\$130) 6/3일에는 \$8하락(\$122)하여 금년도중

최하시세를 나타냈으나 6월중순부터 소련이 1972년도에 이어 소맥이나 사료곡물을 대량 구매하게 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았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다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것이 6월말 이후에는 미국의 대곡물상들이 모스크바까지 가서 곡물상담을 시작하였으나 상담이 구체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7/3일 시세는 전월에 비하여 불과 \$1밖에 상승하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10일후인 7/14일에는 소련의 곡물구매가 차츰 개시되기 시작하자 \$6이 상승하였고 미국에서 1.1천만톤의 곡물구매가 확정된 7/22일 이후 곡물시세는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7/24일에는 6/3대비 \$12, 8/4에는 \$19, 8/11에는 \$23까지 폭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이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사료곡물작황이 일기가 크게 불순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주산지대 일부지역의 홍수나 한발이 생산에 상당의 감소를 자극하고 있으며 기타 수출국가들의 수출예상량이 당초 추계량보다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소련의 작황이 크게 회복되지 못

하고 부족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매할 물량(총 1,500만톤)보다 5~600만톤을 추가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어 이와같은 요인들이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당분간 소련의 대량 구매가 확정될때까지는 곡물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한편 전미농무성차관이며 현재 워싱턴의 경제고문인 '존 슈니트커'씨 같은이는 미국의 농산물가격이 올 가을 추수가 되면 20~30%하락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한다. "존 슈니트커"씨의 말을 인용하면 추수이후 옥수수 톤당 \$120선으로 한국에 도착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동씨는 현재 미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가격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의 작황을 보거나 소련의 추가구매가능성을 감안할 때 6/3~7/3 기간동안에 형성되었던 톤당 \$120선의 가격형성은 거의 기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츠 미농무장관이나 벨 차관보는 1972년도에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소맥 1,200만톤, 옥수수 600만톤, 대두 100만톤, 도합 1,900만톤의 곡물을 구매한 "대곡물약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미국의 식품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수출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상대로 가격의 하락현상은 크게 기대하지 못할 것 같다.

<표 2> 사료곡물의 국제시세(한국도착기준)
단위: \$/톤당C&F

거래일별	옥 수 수				대 두 박				
	9	12	3	5	8	10	12	1	
1. 6	166	154	153	155	250	249	251	256	
2. 3	157	147	150	152	221	223	226	226	
3. 3	137	132	135	137	201	205	208	212	
4. 3	143	136	139	141	215	218	222	225	
5. 1	130	124	126	127	205	208	210	213	
6. 3	122	117	119	121	202	203	206	208	
7. 3	123	119	121	123	208	209	213	214	
7. 14	128	125	128	130	213	215	219	220	
7. 24	133	127	130	130	215	217	221	222	
8. 4	141	143	144	143	217	221	226	230	
8. 5	140	142	143	143	216	219	224	228	
8. 8	144	147	148	148	223	226	232	235	
8. 11	145	141	143	145	209	216	225	228	
가 격 대 비 (6 / 3 기 준)	7. 3	1	2	2	1	6	6	7	6
	7. 14	6	8	9	9	11	12	13	12
	7. 24	12	10	11	9	13	14	15	14
	8. 4	19	26	25	22	15	18	20	22
	8. 11	23	24	24	24	7	13	19	20

2. 국내동향

가. 가축동태

1966년도 이후 가축동태는 <표 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한우는 1974년에 들어와 전년 대비 291,523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농가호당 사육수는 1966년도의 1.14頭에서 1974년말에 1.31頭로 최고기록을 나타냈고 육우의 농가호당 사육수는 1967년의 1.63頭에서 1975년 말에는 7.76두로 크게 증가하고, 젖소는 1966

<표 3>

年度別家畜飼育動態

年度		1966	1967	1968	1969	1970
畜種別	區分					
한우	사육두수	1,289,695	1,242,648	1,193,457	1,202,335	1,270,823
	"호수	1,132,495	1,097,214	1,029,389	1,023,420	1,101,448
	1호당두수	1.14	1.13	1.16	1.17	1.15
육우	사육두수	1,139	2,132	3,301	3,948	3,023
	"호수	414	1,307	1,699	1,606	—
	1호당두수	2.75	1.63	1.94	2.45	—
유우	사육두수	8,471	10,360	13,760	18,820	22,827
	"호수	1,478	1,818	2,145	2,322	3,126
	1호당두수	5.73	5.70	6.41	8.11	7.3
돼지	사육두수	1,457,309	1,296,109	1,395,685	1,338,497	1,121,413
	"호수	1,149,200	1,040,709	1,030,241	990,973	883,413
	1호당두수	1.27	1.25	1.35	1.35	1.27
닭	사육수수	14,007,723	17,079,169	25,967,810	22,651,393	23,476,863
	"호수	1,297,649	1,292,942	1,258,794	1,199,378	1,338,481
	1호당수수	10.80	13.2	20.63	18.89	17.54

年度		1971	1972	1973	1974	1975.3월말	75.3/74
畜種別	區分						
한우	사육두수	1,247,061	1,333,353	1,486,188	1,777,711	1,763,896	99.2
	"호수	1,048,236	1,106,289	1,189,975	1,358,346	1,374,607	101.2
	1호당두수	1.19	1.2	1.25	1.31	1.28	97.7
육우	사육두수	2,865	4,868	6,964	7,449	7,970	106.9
	"호수	825	1,171	1,485	961	1,027	106.9
	1호당두수	3.47	4.16	4.69	7.75	7.76	100.1
유우	사육두수	30,009	36,128	52,424	73,195	80,694	110.2
	"호수	3,270	3,788	5,488	7,378	8,611	116.7
	1호당두수	9.18	9.54	9.55	9.92	9.37	94.5
돼지	사육두수	1,332,513	1,247,637	1,594,718	1,818,338	1,603,903	88.2
	"호수	924,653	861,290	817,444	889,553	776,320	87.3
	1호당두수	1.44	1.45	1.95	2.04	2.07	101.5
닭	사육수수	25,903,054	24,537,353	23,070,981	18,814,204	18,105,952	96.2
	"호수	1,109,909	1,044,843	1,004,130	1,001,885	876,418	87.5
	1호당수수	23.38	23.48	22.98	18.78	20.66	110.0

년의 5.73두에서 1974년 말에는 9.92두로서 71년 이후 농가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10두가까이 육박하고 있으며, 돼지 호당 사육수는 1974년 이후 2두이상을 사육하기 시작했으며, 닭의 사육수수는 1971년 말에 최고기록인 2,590만수를 사양하였으나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1975.3월말 현재 1,810만수로 격감되었으며 농가호당 사육수수도 71,72년도의 23.4수 수준에서 20.66수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75.3월말 현재 가축사육수를 74년말 현재 두(수)와 대비하여

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한우 0.8%, 돼지 11.8%, 닭 3.8%가 각각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양돈사육농가는 12.7%, 닭사육농가는 12.5%가 각각 감소되고 있는바 양계 사육수수의 감소보다도 양계사육농가의 감소율이 더욱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나 육우사육농가나 육우사육수는 다같이 6.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젖소사육농가는 16.7% 증가에 비하여 젖소사육수는 10.2%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가축사육수의 변동은 곧 배합

사료생산면에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배합사료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 배합사료 생산현황

1966년도 이전에는 연간 배합사료생산량이 5~6만톤선을 넘지 못하던 것이 1967년도이후 매년 급격한 상승율을 나타내었으며 1973년도까지는 년평균 133,727톤이 증가하였으나 1974년도에는 전년대비 17,550톤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1975년도 상반기 물량은 전년대비 1%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양계용은 전체적으로는 1%가 감소하였으나 육추용 2%, 육계용은 21%가 각각 증가된 반면 산란계용 사료는 6%가 감소하였다. 또한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4월에 최저수준인 25,456톤을 생산하였으나 5월에 28,054톤을 그리고 6월에는 31,054톤을 생산하여 5월이후 배합사료생산량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것이 6월이후 제란가격 하락요인을

나타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양돈용사료는 전년도 생산량 90,921톤에서 69,193톤으로 21%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6월에 들어와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10,582톤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증가되지 않고 이와같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1974년도의 양돈사육수의 급격한 증식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돈가의 폭락을 갖어왔으며 이로 인한 방매현상과 도살수 증가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대일돈육수출량 증가로 인한 도살수 증가로 폐지의 기초사육수가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1975년도에도 젓소 및 비육우용사료는 양계용 배합사료의 21%감소에 반하여 젓소용 배합사료는 28%, 비육우용사료는 10%가 각각 증가하고 있다. 용도별 구성비를 보면 양계용 배합사료는 전년도의 60.8%에서 금년도에도 동일수준인 60.8%를 나타내고 있으나 육계용은 전년도 7.8%에서 9.7%로 크게 증가된 반면 산란용은 42.9%에서 40.5%로 감소하고 있으며

<표 4>

配合飼料 生産實績

(單位: %)

年 度	養 鷄 用				養 豚	酪 農	肥 育	其 他	計	增加率
	育 雛	産 卵	肉 鷄	小 計						
1 9 6 7	15,779	69,688	1,873	87,340	8,246	4,579	—	7,091	107,256	100
6 8	56,411	126,782	5,295	188,488	14,671	7,659	—	12,496	223,314	208
6 9	39,815	235,763	27,134	302,712	26,512	13,489	—	24,805	367,518	343
7 0	73,630	311,437	69,631	459,698	9,917	19,333	—	18,616	507,564	473
7 1	86,963	427,285	98,905	613,153	19,919	33,186	7,184	28,668	702,110	655
7 2	96,422	434,202	115,704	646,328	48,317	52,980	6,194	22,417	776,236	724
7 3	111,751	448,843	124,736	685,330	121,822	82,544	5,412	14,512	909,620	848
7 4	92,194	382,243	79,996	554,433	188,828	122,409	45,347	16,153	927,170	864
1974. 1~6	43,243	184,419	35,502	261,164	90,921	53,182	14,420	10,304	429,991	
(%)	(10.1)	(42.9)	(7.8)	(60.8)	(21.1)	(12.4)	(3.3)	(2.4)	(100.0)	
1975. 1	6,934	26,268	4,515	37,717	12,217	13,241	3,416	1,029	67,620	
2	7,261	31,424	5,811	44,496	12,137	11,987	3,423	705	72,748	
3	7,019	28,495	6,452	41,966	11,330	14,449	2,933	1,092	71,770	
4	6,459	25,456	6,298	38,213	10,954	11,193	1,958	695	63,913	
5	7,570	28,074	7,704	43,348	119,972	11,940	2,137	1,071	70,468	
6	9,548	31,054	10,209	50,811	10,582	12,120	1,969	682	76,164	
계	44,791	170,771	40,989	256,551	69,193	74,936	15,836	5,274	421,784	
(%)	(10.6)	(40.5)	(9.7)	(60.8)	(16.4)	(17.8)	(3.8)	(1.2)	(100)	
75/74 (%)	(102)	(94)	(121)	(99)	(79)	(128)	(110)	(91)	(99)	

양돈용은 21.1%에서 16.4%로 격감된 반면
 젓소용은 12.4%에서 17.8%로 그리고 비육우
 용사료는 74년도의 3.3%에서 3.8%로 축우용
 배합사료가 도합 전년의 15.7%에서 21.6%로
 비로서 20%수준을 돌파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료원료 도입현황

1967년도를 기준하여 배합사료원료 도입실적
 을 분석 검토해 보면 1974년도까지 도입량은
 1,028%가 증가한 데 비하여 사료도입에 소요
 된 외화는 2,352%에 달하고 있어, 평균 수입
 단가가 약 2.3배가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단가는 1967년도의 톤당 \$71.07에
 서 \$162.54로 상승되었으며 1974년도에는 \$
 174.20로 1967년도에 대비 2.45배가 상승되었
 는 바 이와같은 요인은 곧 국내 배합사료가격
 인상을 자극한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배
 합사료가격은 평균 수입단가가 1972년도의 \$
 74.975에서 73년도에 \$123.759로 상승함으로
 서 1973년도에 세 차례에 걸친 배합사료가격
 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또한 1975년
 도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환율 인상등 요인까
 지 가중되어 두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요인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원료가 해외로부터 조달
 또는 한 수입가격과 환율문제가 곧 배합사료
 가격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다. 또한 1975년도에는 전년 재고 이월량과
 179,687톤 도입분으로 9월15일 경까지 사용
 예정이고 추가로 10만톤을 구매하여 12월에 신
 곡 도입분을 구매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
 할 계획인 바, 7월 하순에 우선 그 중 5만톤을
 아래와 같이 구매하였으며, 또한 잔여 5만톤은
 8월하순에 구매계획이나, 소련의 미국산 소맥,
 옥수수, 보리등 구매가 주요원인이 되어 현재
 수입예정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후
 의 미국의 옥수수 주산지대의 일기여하에 따
 라 야기될 가격변동사태를 예의 주시하지 않
 으면 안될 것이다.

<표 5> 배합사료원료 도입실적

단위: \$/톤

구 분	도입량	단 가	금 액	대 비	
				물량	금액
1967	45,268	71.065	3,216,971	100	100
68	97,976	79.13	7,752,833	216	241
69	218,511	74.525	16,284,549	483	506
70	310,484	85.925	26,678,214	686	829
71	471,019	82.486	38,852,649	1,040	1,208
72	500,542	74.975	37,528,266	1,106	1,116
73	550,299	123.759	68,099,696	1,216	2,117
74	465,524	162.535	75,664,015	1,028	2,352
75.1~6	179,687	174.20	31,301,197	—	—

<표 6> 사료용옥수수 구매내역

(단위: 톤)

품 명	구매계약수량	단 가 C&F	선적시기	원산지
옥수수 (백색)	7,000 (5%증감허용)	\$143.75	8.1-31	모잠비크
" (황색)	10,000 (10%증감허용)	\$135	7.29-9.3	태 국
" (")	20,000 (")	\$132.70	8.3-9.3	태 국
" (")	13,000 (")	\$133	8.10-30	태 국
계	50,000			

※ 단 수입단가에 불구하고 배합사료 가격
 안정기금의 설치운용으로 고정단가가 150이
 기 때문에 150으로 원가계산 하게 됨.

라. 사료의 품질관리

최근 지상보도를 통하여 사료의 품질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사료의 품질수준을 결정짓
 는 요인은 바로 양축가 자신에 있다고 본다.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사료를 구하려면 이세상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료는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반드시 값싼 사료가 경
 제적인 사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시험결과 고효율사료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
 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미나를 통하
 여 소개되었던 고효율사료의 예를 들어 고효
 율사료의 수익성을 참고로 소개드리고자 하니

<표 7> 고효율사료의 수익성

가축의 종류	사료의 품질 (사료의 효율)	사료의 원료 가격 원/kg당	고기 1kg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비 원
육성돈	3.0	85.70	257.1
	4.0	86.90	267.6
	5.0	58.80	294.0
부로일러	2.0	106.20	212.4
	2.5	94.00	235.0
	3.0	90.00	270.0
	4.0	74.80	299.2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현재 수입된 옥수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사에너지 1Kcal당 가격을 산출하여 보면 $\frac{96,530\text{원}}{3,110\text{Kcal}} = 31\text{원}$ 이 되며, 산란계의 경우 최소 2600kcal 이상을 보장하려면 배합사료의 원료비는 80.60원이 되고, 15%정도의 제조관리등 경비를 가산한다면 62,690원이 나오며 여기에 0.3~0.5%정도의 첨가제를 가산한다 해도 최소 93,500원의 가격이 책사리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NRC 사양표준인 2,850Kcal의 사료를 생산하려면 톤당 101,600원 그리고 여기에 톤당 1,500원의 첨가제가 가산되면 103,100원이란 계산이 나온다(물론 어분, 박류,

<표 8> 사료 검사 결과

년도별	(%)								
	1967	68	69	70	71	72	73	74	75
위반율	21.4	19.6	14.1	15.9	9.1	9.0	18.1	15.0	5.9

강류등 기타원료가 배합되기 때문에 이 계산치가 반드시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6/15현재 미국의 산란계용 배합사료가격은 톤당 \$144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원화로 환산(485:1)한다면 69,840원 수준이고 여기에 미국내 수송 조작비와 선임을 최저수준으로 보아 \$50(추정)을 가산하면 94,090원이 소요되며 국내수송비 10%정도를 가산하면 103,5006원이 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원료를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6월 현재 일본의 산란계용 배합사료의 공장도가격은 톤당 65,550엔이며 이를 원화환산(1.66:1)하

면 108,813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와같은 계산은 편의상 참고로 소개드린 것이니 참고하기 바라며, 이와같은 추리에 의하면 값싼 사료를 원할 경우 에너지 수준이 낮은 저효율사료를 요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과연 플러스가 될 수 있을런지는 양축가여러분의 판단에 따를 따름이나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배합사료 검사결과에 근거를 둔다면 사료검사 결과 위반율이 <표 8>과 같이 변동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료검사 결과 불합격사료가 5.9%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으나 이와같은 사료검사는 어디까지나 일반조성분의 화학적분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포함한 고효율사료를 구득하려면 단가에 미련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료의 품질을 고려한 적정가격의 사료를 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배합사료의 원료 배합내용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나 양계사료의 경우 50~60%의 옥수수가 항상 확보되어 있고 10~20%의 소맥피가 차질이 없도록 공급되고 5%수준의 대두박, 그리고 이밖에 패분, 어분 및 국산박류등이 원활히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 배합율이 변경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실을 간혹 일부 양축가가 왜곡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배합사료원료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마. 가격전망

모든 양축가들은 사료품목의 국제시세가 하락하고 있으며 또한 5만톤의 옥수수를 종전가격보다 약 40불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배합사료가격이 상당히 하락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하락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공감이 간다. 그러나 7.31부터 수입되는 모든 사료용 옥수수는 톤당 \$150

(C&F)로 고정단가를 정하여 농협중앙회가 배합사료공장에 매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패도입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은 사료가격안정기금에 적립하였다가 톤당 \$150이상 가격으로 옥수수가 수입될 경우 고정단가인 \$150과의 차액을 보전하고 \$150에 계속 배합사료공장에 판매함으로써 가격의 평준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150에다 방위세가 2.5%가산하면 실제 옥수수가격은 \$153.75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분 및 식물성박류 가격이 현재 보험세를 이루고 있으나, 이밖에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양축가에게 간접보상조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왔던 정부관리양곡 부산물이나 소맥피등을 적자부담가중, 지나치게 저렴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강류과동과 사료자원의 낭비, 부조리현상 유발조장, 그리고 국내 자원개발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이유로 가격의 현실적 조정을 구상하고 있으며 소맥피등은 자유화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가격의 인상폭은 현재의 시중시세나 또는 기타 사료와의 적정가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행수준에서 60~70%의 가격조정은 가능하리라 본다. 이와같은 여건을 감안한다고 볼 때 강류사료의 배합율이 적은 양계사료의 경우는 몇 %정도의 소폭적인 가격인하도 기대할 수 있겠으나 강류사료의 배합률이 높은 양돈이나 축우용 배합사료가격은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현상이 야기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여하튼 진실된 양축을 하려면 외형상의 가격표시만을 가지고 사료를 논할 것이 아니라 사료의 효율(품질)을 가지고 사료를 선택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싼 사료만을 선택하려 한다면 현재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판매가격은 낮출 수가 있을 것이다. 사료는 가격만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축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수익을 올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싼 사료를 선택할 경우 오히려 손실을 보게될 경우가 허다하리라 본다. 따라서 배합사료의 판매가이란 항상 그 사료가 지니고 있는 가치, 즉 품질과 비례하고 있다는 원리를 더욱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배합사료에는 대체적으로 원료비가 평균 85%소요되고 나머지 15%가 제조경비를 비롯한 배합사료제조업체의 총경비에 해당된다. 아무리 경영개선을 이룩한다 하여도 과연 동일 여건하에서 몇%의 경비절감이 가능하겠는가 참으로 의구심을 금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양축가 여러분은 이와같은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료공장이 싼 사료 즉 비경제적사료를 생산하도록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고효율사료, 나아가서 경제적 사료를 생산하도록 체적질하여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기계장치 감가상각충당금 ××

제세공과 ××

(5) 미수입의 계산

7. 현금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으나 당기 수익으로 계산할 사항을 계산하여 다음 분개를 한다.

미수이자 ×× 이자수입 ××

전월중 미지급금을 환원키 위하여 다음 분개를 한다.

미지급금 ×× 전좌료 ××

전기수수료 ××

급 료 ××

사무용품비 ××

상하차비 ××

4. 결 어

이상 열거한 사항만으로는 실제적으로 손익 계산서나 대차대조표의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 ① 고정자산 및 축산물의 감가상각 방법.
- ②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및 비용의 한계.
- ③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 ④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요령 등을 추후 기회 있는대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한다. ■

(Page55에서 계속)